

“승계 문제로 기업 사라지지 않게… 中企 세대교체 지원”

우리은행 ‘생산적 기업승계’
가업·3자 승계 위한 솔루션 공급
‘자녀 승계’ 고민 경영자가 과반
제3자 고려하는 경우 37% 달해
자녀승계 대안 MBO·EBO 제시

우리은행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생산적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기업승계는 물론, 인수합병(M&A)이나 경영진·임직원 인수(MBO·EBO)를 통한 제3자 승계를 위한 솔루션도 공급한다.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지원해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장기생존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우리은행은 1일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기업승계 및 세무컨설팅을 공급하며, 경영 및 재무 상담도 제공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더 나은 기업 생태계를



1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승계 문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기업 승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순환이나 사회적 분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자녀 승계’ 한계… ‘임직원 승계’ 대안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기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체결된 업무협약 건수는 약 740건이다. 기업승계를 고민하

는 경영자 중 과반은 자녀승계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자녀 이외에 제3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37%에 달했다. 특히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78.5%는 ‘자녀의 승계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를 이유로 꼽았다.

우리은행은 MBO·EBO를 자녀승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MBO 및 EBO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직원에 소유권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이 경영 승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경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서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본부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MBO나 EBO와 같은 생산적 승계는 준비되지 않은 자녀승계보다 나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의 사례에서는 자녀 상속이 반복될수록 기업의 생존율도 낮아졌다. 준비가 미비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만큼, 혁신이 어렵고 시장 변화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승계 전(全) 과정 지원

우리은행의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 기업매각, 세무, 경영권 이전 등 기업승계의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자녀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세무 지원을 제공하며, 제3자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무진단을 제공하고 법인 전환도 돕는다. 외부 매각을 준비하는 경우 인수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법률·세무지원과 연계한 금융 서비스도

공급한다.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수금융과 보증지원을 제공하며, 경영 안정을 위한 지분이전이나 지배구조 개선 과정도 지원한다. M&A나 MBO·EBO 등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는 신규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업승계 이후에는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대출 및 자금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재무·회계 분야의 자문도 제공한다. 특히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인사제도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조직구조 재설계도 지원한다. 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나아가 중·장기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윤성후 본부장은 “안정적인 기업상속을 위해 10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승계가 이뤄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혁신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發 수출 호황… 금리 인하엔 ‘변수’

5월 수출액 877.5억 달러 ‘역대최대’
고물가·고환율 등 인화 필요성 부각
수출 흑자·성장세 상향 ‘인상 요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경제의 성장 눈높이를 끌어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동발 물가 충격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이 크게 올라가자 통화정책의 초점은 경기 방어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관리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2%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사실상 견인한 셈이다.

무역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수입은 고유가 영향으로 60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20.8%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5월 무역수지는 269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1~5월 누적 흑자도 1019억1000만달러로

올라섰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통화정책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한은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방어할 명분이 커진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를 위한 완화 필요성이 약해진다.

한은의 5월 경제전망도 이 흐름을 반영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0.6%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p 끌어 올릴 것으로 봤다. 추가경정예산과 증시 호황도 각각 0.2%p, 0.1%p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했다.

성장률 전망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에는 긍정적이나 기준금리 경로에는 부담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가 남아 있을 경우 오히려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물가 전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올렸고, 근원물가

전망치도 2.1%에서 2.4%로 상향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안정 부담도 여전하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인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도 다시 한은의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은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신현승 한은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경제의 성장 버팀목이지만, 한은에는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 총재도 반도체 경기의 지속성을 통화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봤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일시적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에 무게를 실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NH농협금융, 기업성장 ‘생산적 금융’ 속도

‘One-Firm협의체’서 방안 논의

NH농협금융이 가계여신과 이자주의 중심 영입의 한계를 넘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에 속도를 낸다.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량기업 고객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키워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NH농협금융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년 제2차 ‘One-Firm협의체’를 열고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논의의 초점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외감·중견기업 중심의 고객기반 확대, 지역 산업금융 활성화, 현장 중심 기업금융 지원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금융 경쟁력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우량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RM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주형 기자

대우건설, 건설현장 맞춤형 ‘AI번역기’ 개발

외국인 근로자 비중 지속적 확대
은어·전문용어 반영 정확도 높여

대우건설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실시간 AI번역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AI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히 기성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음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건설 특화 용어사전’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쓰는 단어를 즉시 등록·수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용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가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AI번역기 기능에 대해 교육 중이다. /대우건설

또한 최대 18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음성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통역이나 내용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일부 작업반장에게 의존하던 통역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韓 축구 응원 ‘BEST 11 적금’

오는 24일까지 3만좌 한도 판매
기본+우대 금리 최고 11% 제공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대표팀 경기 결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BEST 11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6월 열리는 국제 축구대회를 기념해 마련됐으며, 대표팀 성적에 따라 최고 연 1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24일까지 3만좌 한도로 판매되는 BEST 11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

0%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8.8%를 더한 최고 연 11.0%이다.

우대금리는 자동이체 등록시 연 0.1%, 마케팅 동의시 연 0.1%가 각각 제공된다. 또한, 특별우대금리 조건은 ▲32강 진출시 연 1.5% ▲16강 진출시 연 2.0% ▲8강 진출시 연 5.5% ▲4강 진출시 연 8.8%로 대표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적금 만기 해지시점에 차등 적용된다.

BEST 11 적금 가입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유리 기자 yul115@